coupang newsroom

# [보도자료] 쿠팡, '1인가구 주방용품' 전문관 오픈

2019. 8. 8.

- **1인가구를 위한 44만 여개 주방용품 제안**
- **'홈루덴스족'을 위한 혼밥, 홈바, 홈카페 테마로 관련 상품 추천**
- **오픈 기념 최대1만5000원 쿠폰할인관과 50% 할인관 운영**

2019. 8. 8. 서울—쿠팡은 1인 가구 고객들을 위해 '1인가구 주방용품' 전문관을 오픈했다고8일 밝혔다.

쿠팡은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▲혼밥 ▲홈바 ▲홈카페 ▲주방가전 ▲주방살림 등5개의 테마로 나눠44만여 개 상품들을 선보인다. 미니밥솥, 미니그릴, 냉동밥 전용용기 등1인가구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사이즈나 용도의 상품들을 모았다.

특히 홈바와 홈카페 테마는 최근 집에서 모든 것을 즐기는 이들을 일컫는 홈루덴스족(Home+Ludens)을 겨냥했다. 맥주잔, 커피머신 등 집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고객들을 위한 상품들을 별도로 모아 필요한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.

이와 함께 전문관 오픈을 기념해 7만원, 3만원, 2만원 이상 구매시 각각 1만5000원, 5000원, 2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할인관을 운영한다. 최대 50% 즉시할인관도 함께 꾸몄다.

대표상품으로'보울보울 어반데일리 1인 홈세트'를 쿠팡가 2만5000원대에 판매한다. '퀸센스 멀티 라면포트 1.8L'와 '쿡앤밥 체리티 전자레인지용 용기'는 각각 쿠팡가 10만2000원대, 5만5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. 1인 가구에 적합한 사이즈로 쉽게 갓 지은 집밥을 완성할 수 있는 '제니퍼룸 마카롱 미니밥솥'은 5만4000원대에 구매 가능하다.

윤혜영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"1인가구 증가와 함께 해당 고객층을 위한 상품군이 늘어나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전문관을 오픈했다"며 "앞으로도 고객들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별에 맞춘 전문관들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**취재 문의** media@coupang.com